

GM,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 출시 한국형 자율주행 기술경쟁 드라이브

국내 최초 ‘슈퍼크루즈’ 도입 모델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739km 인종
“소비자에 새로운 경험 제공할 것”

제너럴모터스(GM)의 최첨단 기술을 품은 캐딜락 플래그십 전기스포츠유틸리티차(SUV) 에스컬레이드 IQ가 국내에 공식 출시, 20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이 차량은 국내 최초로 핸즈프리 자율주행 기능인 ‘슈퍼크루즈’를 도입하며 테슬라, 현대차 등과 국내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 드라이브를 건다.

윤명옥 한국GM 최고마케팅책임자(CMO) 겸 커뮤니케이션 총괄(전무)은 19일 서울 강남구 엔헤이브에서 열린 출시 행사에서 “에스컬레이드 IQ는 에스컬레이드가 쌓아온 헤리티지를 전동화 시대에 맞춰 확장한 캐딜락의 핵심 모델로, 국내 최초의 풀사이즈 전기 SUV를 통해 브랜드가 지향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에스컬레이드 IQ와 비교할 수 있는 경쟁 모델은 없다”고 자신했다.

에스컬레이드 IQ는 GM의 최신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GM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사인 울티엄 셀즈(Ultium Cells LLC)에서 생산한 205kW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국내 최장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739km(복합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

기준, 도심 776km, 고속 692km)를 인정받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존로스 글로벌 캐딜락 부사장은 “실제 주행거리는 인증받은 것보다 뛰어날 것”이라며 “주행거리는 900km 이상 나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GM 전기차 아키텍처 기반 205kWh 울티엄 배터리는 800V 초급속 충전을 지원해 10분 충전 시 최대 188km 주행이 가능하다. 배터리와 조합된 듀얼 모터 AWD 시스템은 750마력과 108.5kg·m의 토크를 발휘하며,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4.0과 에어 서스펜션이 정교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특히 에스컬레이드 IQ에는 GM의 핸즈프리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슈퍼크루즈’가 국내 최초로 적용된다. 현

재 국내 약 2만3000km의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에서 사용 가능한 슈퍼크루즈는 운전자가 전방 주시(Eyes On)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고 주행할 수 있는 ‘핸즈프리 드라이빙’을 구현한다. 또 교통 흐름을 감지해 차량 간 거리를 유지하고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한다.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운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채명신 한국GM 디지털 비즈니스 총괄(상무)은 “슈퍼크루즈는 2017년 업계 최초로 적용된 핸즈프리 시스템으로 8억7700만km를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작동했다”며 “미국과 중국에 이어 한국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KAI-EDGE그룹, 방산 등 전략적 협력

미래 전략사업 전반 협력 가능성 탐색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UAE 정부가 국영·민간 방산기업 25개사를 통합해 설립한 방산 연합체인 EDGE 그룹 산하인 플랫폼앤시스템즈(Platforms and Systems)와 전략적 협력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포괄적 협약은 양사가 각자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 전략사업 전반에서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고, 향후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공동 마케팅과 제품 협력 확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추진됐다.

KAI는 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중·지상·해상 플랫폼과 관련된 핵심 시스템을 개발 및 생산하는 플랫폼앤시스템즈를 러스터와 상호 기술협력과 공동 연구·생산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중동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DGE 그룹은 UAE 정부가 설립한 첨단 방산·안보 분야의 대표적인 국영 방산 기업으로, 무인기, 유도무기, 사이버·전자전, 해양·지상시스템 등 미래 기술 중심의 솔루션을 개발 및 제공



차재병 대표(왼쪽)가 하마드 알 마라 EDGE 그룹 총괄사장과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AI

하고 있다. 현재 35개 이상의 자회사를 보유, 연 매출 50억 달러, 직원 1만 7000명 규모로 중동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방기술 기업 중 하나로 평가되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국제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차재병 KAI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양국 항공우주 산업이 보유한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양사 간 기술·산업 생태계가 더욱 긴밀히 연결되고, 미래 항공우주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HS효성첨단소재, K-방산 섬유 브랜드 소개

밀리폴 파리 2025

알렉스 기반 방탄, 방검 솔루션 제시

HS효성첨단소재는 18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밀리폴 파리(Milipol Paris) 2025’ 전시회에서 K-방산 아라미드 섬유 브랜드 알렉스(AL KEX)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밀리폴 파리’는 프랑스 내무부가 주관하는 유럽 최대 국토안보 전시회로 2년마다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11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하고, 160개국 3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HS효성첨단소재는 이번 전시회에서 유럽, 미주 등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자체 기술로 개발한 아라미드 섬유 브랜드 알렉스를 알리고 우수한 방탄, 방검

솔루션을 제시해 글로벌 시장 내 판매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협력사인 경강산업의 아라미드 방탄헬멧과 방탄복의 해외 홍보도 함께 지원한다. HS효성첨단소재는 경강산업에 전시회 참가비용 전반을 후원해 글로벌 판로 확대를 도우며 ‘가치, 또 가치’라는 그룹 슬로건 아래, 국내 협력사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에 힘을 쏟고 있다.

임진달 HS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는 “알렉스는 유럽 여러 나라들의 군·경 방탄장비에 활용돼 우수한 품질로 고객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HS효성첨단소재는 알렉스를 앞세워 K-방산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효성그룹, 배인한 부사장 등 29명 임원인사

배용배·박남용 부사장 선임
‘30대·여성’ 미래 성장 방점

효성그룹이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글로벌 역량을 기반으로 뛰어난 경영 성과를 달성하거나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에 기여한 인재들을 중심으로 임원 인사를 했다.

효성은 배인한 동나이법인장, 배용배 중국 남통법인장, 박남용 효성중공업 건설PU장 등 부사장 3명과 신규 임원 13명을 포함한 29명 규모의 정기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배인한 부사장(사진)은 1989년 효성 기술원에 입사해 스파텍스 개발 및 생산에 참여했다. 이후 베트남·중국·인도 등 글로벌 사업 확대를 주도하며 스파텍스가 글로벌 1위 제품으로 올라서는 데 기



여했다. 2023년부터 동나이법인장으로 효성티앤씨의 글로벌 사업을 이끌고 있다.

배용배 부사장은 1993년 효성중공업에 입사한 이후, 초고압변압기 설계 및 생산 분야에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아온 기술 전문가다. 2022년 국내영업 총괄(전무)을 거쳐 2023년부터 중국 남통법인장을 맡아 효성중공업 전력부문의 글로벌 사업 확대를 이끌고 있다.

박남용 부사장은 1990년 효성건설 입사 후 현장 시공과 영업·마케팅을 두루 경험한 건설 분야 전문가다. 2022년부터 효성중공업 건설PU장을 맡아 건설부문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

효성은 이번 인사에서 젊은 인재와

여성 인재를 각각 전진 배치했다.

전재하 효성중공업 시드니지사장은 30대 임원으로 지난 2024년 PL(부장급)으로 조기 승진한 지 1년만에 신규 임원으로 발탁됐다. 전 상무는 효성중공업의 호주 등 오세아니아 신규 전력 시장을 개척하는 데 기여해왔다.

여성 신규 임원으로 발탁된 김수정 상무는 지난 2011년 효성티앤에스에 입사한 이후, 제품기획, 글로벌 마케팅 업무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해 왔으며, 지난 2021년부터 해외영업본부 마케팅팀장을 맡고 있다. 안정희 상무는 지난 2016년 효성티앤씨에 입사한 이후, 철강1PU 후판팀장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철강 무역 사업의 글로벌 확대를 견인해 왔다.

/차현정 기자 hyeon@

LG전자, 시카고에 ‘SKS 쇼룸’ 오픈

북미 시장 소비자 접점 확대

LG전자가 미국 시카고 ‘더 마트(The Mart)’에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브랜드 ‘SKS’ 쇼룸을 신규 오픈하며 북미 시장에서의 고객 접점을 확대한다.

LG전자는 최근 미국 시카고의 디자인·건축 전문 상업 공간 ‘더 마트’에 SK

S 신규 쇼룸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쇼룸은 미국 내 파벨리, 뉴저지에 이어 중부 지역에 구축한 세 번째 거점으로, 연간 수십만 명이 방문하는 더 마트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B2B·B2C 고객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신규 쇼룸은 총 806㎡ 규모로 세계적인 건축가 피에로 리소니(Piero Lissoni)

가 설계를 맡았다. 라운지와 전시 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한 구조에 이탈리아 명품 가구·소재 브랜드와 협업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구현했다. 내부에는 다섯 개의 주방 공간을 포함해 ▲가스·인덕션·수비드 기능을 통합한 ‘프로레인지’ ▲메탈릭 디자인과 다기능 서랍을 갖춘 ‘빌트인 프렌치도어 냉장고’ ▲내부 카메라 기반 식재료 분석·레시피 추천 기능을 탑재한 ‘월요브’ 등 핵심 제품들이 전시된다.

/정희준 기자 nauta@

삼성전자, ‘스타 오브 더 시즈’ 제품 공급

TV·스마트 사이니지 6000대 설치

삼성전자는 글로벌 해운 업체인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의 ‘스타 오브 더 시즈’ 내 2805개의 객실과 라운지 등 선내 시설에 TV와 스마트 사이니지 약 6000여 대를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미국 플로리다 포트 캐너버럴에서 신규 취항한 ‘스타 오브 더 시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초대형 크루즈선으로 무게는 25만800톤, 길이는 약 365미터에 달하며 ‘타이타닉’호 보다 약 5배 더 크다.

객실과 승무원실 등에 공급된 TV는 상업용 ‘크리스탈 UHD(HBU8000)’ 모델로, 10억 개의 컬러를 표현하는 압도적 선명함으로 몰입감 넘치는 시청 경험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의 ‘스타 오브 더 시즈’ 크루즈선에 설치된 삼성전자 TV와 사이니지. /삼성전자

을 제공한다.

또 피트니스센터, 레스토랑 등 선내 주요 시설에는 24시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사이니지가 설치돼 여행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차현정 기자